

작품 개요

「아흔 아홉 양」은 작곡자가 27세 때인 1949년 11월 7일 성가독창곡으로서는 최초로 작곡되었고, 1977년 4월 16일 수정되었다. 합동찬송가 194장에 있는 클레페인(Elizabeth Cecilia Douglas Clephane, 1830~1869)의 가사를 다소 수정해서 레치타티보와 아리아, 또 그 절충식으로 작곡한 곡으로서 가사의 내용을 충실하게 묘사하고자 한 작품이다.

이 곡은 1952년 12월 9일 부산 향서교회에서 개최된 <유경손 독창회>(현대음악학회 주최)에서 부인인 알토 유경손(柳慶孫, 1921~2011), 정진우 반주로 초연되었고, 12월 10일 7곡의 가곡으로 구성된 나운영의 첫번째 가곡집인 『아흔 아홉 양』(한국현대음악학회)에서 책의 제목으로 삼아 출판되었다.

(아쉽게도 이 곡의 원보는 분실되어 여기에 소개하지 못합니다.)

작품 해설

이 찬송가는 클레페인(E.C.Clephane)이 누가복음 15:3-7절의 내용을 4개의 절로 작사한 것이다. 단순한 찬송가의 음악은 나운영에 의해 전혀 다른 성격의 음악이 된다. 4개의 절은 해체되어 일관작곡된다. 각 절의 가사 내용에 따라 음악이 달라지는데, 잃은 양을 찾는 과정이 드라마틱하게 표현된다.

마디 1-12 (찬송가 1절 가사)는 마치 오라토리오나 오페라의 레치타티보에 가깝다. 성악적이라 할 만한 선율은 대단히 억제된 방식으로 나타나고 언어적으로 불규칙하게 분절하는 측면이 두드러진다. 불규칙한 박자변화는 박절적으로 예측할 수 없게 한다. 노래가 먼저 가고 피아노 반주가 그 뒤를 따른다. 삼화음 종류들도 나오지만 어느 것이 기본적인 것인지 불투명하다. 연결되는 화음의 기능성도 없다. 불협화적 화음은 해결되지 않는다. 음악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긴박한 걱정을 이야기한다.

마디 13-24 (찬송가 2절 가사)는 앞부분과 유사하게 레치타티보적이다. 성악이 끌고 타악기적 반주가 뒤따르는 것도 같은 방식이다. 화성적으로는 c단조적 성향을 점차 드러낸다. “비록 길이 멀고 험해도 나 속히 찾아가겠네”의 단호한 언급으로 마무리한다.

마디 25-32 (찬송가 3절 가사)에서는 왼손 반주가 옥타브와 반음이 첨가된 5도로써 길을 찾아나서는 목자의 힘든 걸음걸이를 묘사하며 마디30까지 계속한다. 이 지친 걸음걸이 리듬은 “찾아 갈 때에” (마디26)에서 4분음표 간격으로 나오다가 “저 험한 곳에서” (마디27)는 점2분음표와 4분음표를 통해 더 힘겹게 느껴지게 한다. 노래의 선율은 완전한 c단조의 음계를 지키며 계속되다가 환한 C장조로 나아간다. C장조는, 가사내용이 양울음 소리를 듣는 마디29에서, 이미 짧게 예고되고 있다.

마디 34-49 (찬송가 4절 가사)는 잃은 양을 찾은 것을 기뻐하는 부분으로 빠른 템포와 마르카토, 그리고 장조의 조성 때문에 매우 밝다. 마디37의 옥타브 도약을 목표 삼아 선율이 상승한다. 마디38부터는 민속음악적 리듬을 가진, C장조적으로 구성된 선율이 나타난다. 기쁜 가사의 내용이 흥을 돋구는 리듬과 결합되어 있다.

이 곡은 언어 낭송적인 부분과 리듬의 틀을 갖고 노래하는 부분, 단조와 장조, 느린 곳과 빠른 곳 등의 대조성으로 부정적 상황이 긍정적 상황으로 바뀌는 가사의 내용을 표출한다. 낭송적 부분의 반주는 판소리 아니리의 추임장단처럼 타악기적으로 반주되다가 필요에 따라 선율적으로 이어진다. 특히 곡을 마무리짓는 마디34 이후부터는 양을 찾은 기쁨이 민속음악적 흥겨운 리듬 가운데 살아나도록 했다.

- 홍정수, 한국교회음악사, 가온음, 2021 중에서 -